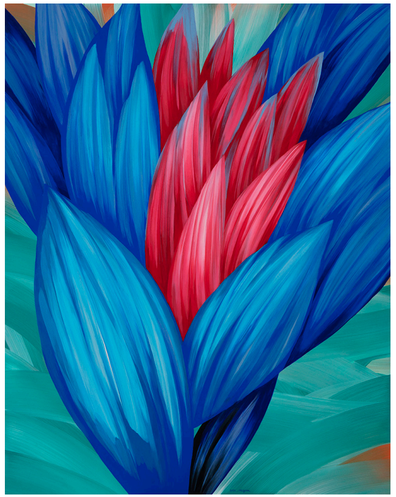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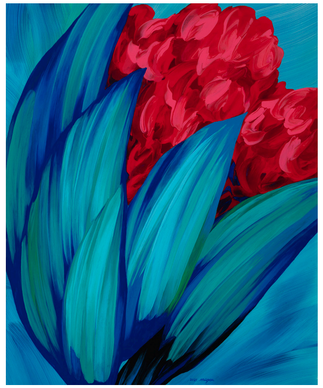


지금 이순간5 116.5x91cm, 한지배접한 화판위에 아크릴, 2022

지금 이순간9 50x65cm, 한지배접한 화판위에 아크릴, 2021



지금 이순간10 65x53cm, 한지배접한 화판위에 아크릴, 2021

이미숙

학력

199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200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개인전

2021 색: 감각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감각으로 사이아트센타 선정 작가 공모전 (갤러리 더 플럭스, 서울)
2019 색, 바라보다 (아트스페이스 애니꼴, 경기도 일산)
2017 내버려두고, 기다리고, 만나고 (갤러리 H, 서울)
2015 감각의 파동 (갤러리 카페 밀, 경기도 일산)
2012 상상정원 (인사아트센타, 서울)
2011 식물의 동물되기 (THE K 갤러리, 서울)
2006 색 이야기 (모로 갤러리, 서울)
2004 색 동 (한서 갤러리, 서울)
2002 색 · 에로티즘 (한서 갤러리, 서울)
2001 색 · 체 (한서 갤러리, 서울)

그룹전

2021 아트락 페스티벌 (스타필드 코엑스 몰, 에코락 갤러리, 서울)
2021 브리즈 아트페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21 아트 고양 거주 작가 초대전 (에코락 갤러리, 경기도)
2020 브리즈 아트페어 (한남동 안도, 서울)
2019 아트경기 미술장터 'ALL ABOUT LOVE' (성수동 에스팩토 리, 서울)
2019 아트경기 미술장터 'ART LIVING HOUSE' (경기상상캠퍼 스, 경기도)
2019 경기, 아트로 물들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동, 칸KAN, 경기도)
2019 아트경기 팝업갤러리X국립암센타전시 (국립암센타, 아트플레이스, 경기도)
2019 갤러리 너트 선정작가 특별전 (서울)
2014 KIAF/14 (코엑스, 서울)
2014 2014 MAF(미니아트페어) (이다갤러리, 서울)
2013 서울아트쇼 (코엑스, 서울)
2013 강원아트페어 (춘천문화예술회관, 강원도)
2003 유쾌한 공작소 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3 현대회화의 이미지 전 (조형갤러리, 서울)

소장/작가선정

2020 경기도 문화재단 작품 소장
2021 10월의 작가선정, 에코락 갤러리
2019 아트경기 작가 선정

LEE MI SOOK

Educatoin

1999 BFA, Dept. of Fine Art, Graduate School of Seou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2 MFA, Dept. of Fine Art, Graduate School of Seou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lo exhibition

2021 Color: From sense to memory from memory to sensation (Gallery the FLUX, Seoul)
2019 Color, Looking At (Art Space Aenigol, Gyeonggi-do, Il San)
2017 Leaving, Waiting, Encountering (Gallery H, Seoul)
2015 Wave of Sensation (Gallery Cafe Mill, Gyeonggi-do, Il San)
2012 The Imaginary Garden (Insa Art Center, Seoul)
2011 Becoming Animal of Plant(THE K Gallery, Seoul)
2006 Story of Color (Moro Gallery, Seoul)
2004 Color Movement (Hanseo Gallery, Seoul)
2002 Color · Eroticism (Hanseo Gallery, Seoul)
2001 Color · Body (Hanseo Gallery, Seoul)

Group exhibition

2021 Art rock Festival (Starfield x Ecorock Gallery, Seoul)
2021 Breeze Art Fair (Hangaram Art Museum, Seoul)
2021 Art Goyang Invitation Exhibit of Residence Artists, (Ecorock Gallery, Gyeonggi-do)
2020 Breeze Art Fair (Cafe ANDO, Seoul)
2019 ArtGyeonggi Art Market : 'ALL ABOUT LOVE', (Seongsu-dong, S Factory, Seoul)
2019 ArtGyeonggi Art Market : 'ART LIVING HOUSE' (Gyeonggi sscampus, Gyeonggi-do)
2019 Special Exhibition of Selected Artist (Gallery Knot, Seoul)
2014 KIAF/14 (Coex, Seoul)
2014 2014 MAF(mini art fair) (Eda Gallery, Seoul)
2013 Seoul Art Show (Coex, Seoul)
2013 Gangwon Art Fair (Chuncheon Art Center, Gangwon-do)
2003 Joyful Factory (Seoul Museum of Art, Seoul)
2003 Image Exhibition of Modern Painting (Chohyung Gallery, Seoul)

Collection/Selection

2020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21 Selected as one of October Artists
2019 Selected as one of Art GyeongGi Artists

주최/주관 카이스트 경영대학 **Sponsored by** KAIST College of Business
큐레이터 정지연 **Curated, Written by** Jeong Jiyeon
디자인 황현지 **Designed by** Hwang Hyunji

KAIST 경영대학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5(청량리동)
KAIST 경영대학
Tel 02 958 3224 / Fax 02 958 3220

지금 이대로5 80x100cm, 한지 배접한 화판위에 아크릴, 2021

색, 좋은 이 순간

이미숙 개인전
LEE MI SOOK

2022
6.22 ~ 8.10

카이스트 경영대학 SUPEX 경영관 2층
Research & Art Gallery

Mon ~ Fri
10AM ~ 6PM

색, 좋은 이 순간

초록이 짙어지는 계절이다. 공원이나 숲에 가면 절로 심호흡을 하게 되고, 생기를 얻는다. 초록의 그늘 아래서는 알지 못하는 작은 생명체들 마저도 안전할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녹색 불이 켜지면 yes, 길을 건너도 되고 비상구를 향해 달릴 수도 있다. 좋은 징조가 보이면 우리는 '그린 라이트(green light)' 라고 말한다. 색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도 우리는 녹색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다. 다른 모든 색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 색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미숙 작가는 색을 감각하는 일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의미 있는 일인지 이야기한다. 우리가 어떻게 색을 통해 다양한 감성의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 색 자체에 몰입한 상태에서는 어떤 감각적 경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순간 색은 시각 뿐 아니라 여러 감각을 통해 당혹스러울 만큼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모호하지만 분명히 좋은 어떤 순간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작가는 본인이 경험하거나 제안하는 색의 인상을 더 잘 표현하고, 색에 대한 감각 속에 머무르는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작업적 고민과 실험을 해나가고 있다. 팽팽하게 당겨진 삼합 장지에 나이프로 아크릴 물감을 펴 바른다. 결이 고운 한지 위로 물감이 부드럽게 뻗어나가는 느낌은 그 자체로 작가에게 기분 좋은 순간이기도 하다. 손은 과감하게 거침없이 움직이고 색들은 화면 위에서 펼쳐지며 만나고 엇갈리며 환호한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등의 기본 색들을 기반으로 하는 작품들은 주위를 압도하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그 에너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열정이 될 수도 있고, 긴장, 기쁨, 슬픔이나 분노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 에너지는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강렬한 몰입으로 이끌며 그러한 몰입은 어떤 식으로든 쾌락의 순간을 동반한다. 그 감각의 시간 후에는 폭풍 후의 바다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진동하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남겨 질지도 모른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면 슬퍼진다는 사람이 있듯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색은 어떤 색일까, 각각의 색들에 반응하는 당신의 감정은 어떤 모습일까, 당신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 색과의 인상적인 만남, 색에 대한 몰입의 경험과 즐거움,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깃든 색을 찾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큐레이터 정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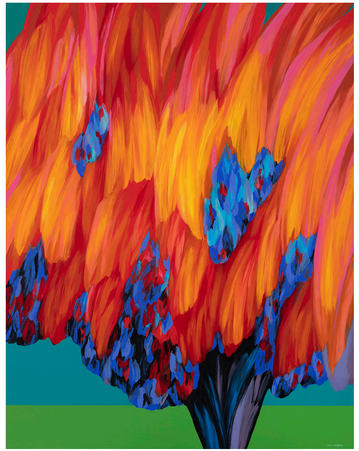
작가 노트

나의 작업은 색의 보이지 않는 울림을 볼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어 표현하는 작업이다. 색이 펼쳐지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색들 간의 긴장, 대립, 조화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울림은 나이프의 터치를 통해서 큰 흐름을 만든다. 색의 흐름은 어떤 리듬을 이루면서 강한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색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에너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정과 감성을 어떤 느낌으로 표현한다. 이제 화면은 깊고 무거운 긴장과 가벼운 반짝거림,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 조화를 이루는 감각지대를 형성한다. 색 에너지에 공명하는 일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채우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을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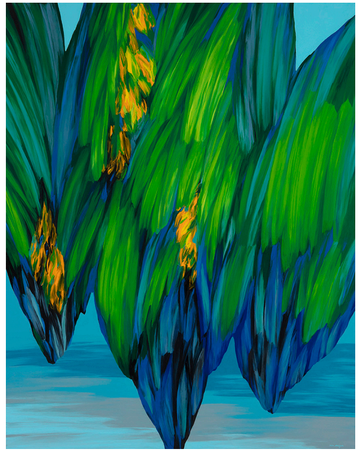
- 아티스트 이미숙

지금처럼1 53x45.5cm, 한지배접한 화판위에 아크릴, 2021

지금처럼2 60.5x72.5cm, 한지배접한 화판위에 아크릴, 2022



낯선 쾌감6 116.5x91cm, 한지배접한 화판위에 아크릴, 2020



낯선 쾌감7 116.5x91cm, 한지배접한 화판위에 아크릴, 2020

Colors, Celebrating the Good Moments

It is a season when green is deepening. You naturally take in deep breaths of air in parks or forests, gaining vitality and feeling rejuvenated. The shade offered by green seems to create a safe haven for small creatures whose names are unfamiliar to us. When the light turns green, it means we can cross the road or run towards the emergency exit. When a good omen appears, we call it a "green light." We can see, feel, and enjoy the color green even without special knowledge or information about colors. The same goes for other colors. For those interested in experiencing the world of colors, this exhibition is an opportunity to take a step closer.

The artist Misook Lee looks at how fascinating and meaningful it is to experience colors. Her work is the result of asking questions like how colors bring out diverse emotions and what sensory experiences occur when we are immersed in colors. Colors intensify our emotions not only visually but also through other senses, guiding us to obscure but clearly pleasurable moments.

The artist is continuously exploring and experimenting to better express her impression of colors and to share her sensory experiences. She uses a knife to spread acrylic paint over a piece of three-layered traditional Korean paper. For the artist, the smooth flow of paint onto the white paper is a pleasurable moment in itself. Her hands move boldly and without hesitation, allowing the colors to meet and mingle.

The artist's works, created using basic colors such as red, blue, yellow, and green, exude overwhelming energy. This energy is strong yet gentle, heavy yet light. Depending on the viewer, it can be interpreted as passion, tension, happiness, sadness, or anger. Regardless, it helps to achieve a sense of immersion, and eventually leads to a pleasurable moment. Some thoughts or emotions continue to linger for some time, like calm ripples on the ocean waters after a storm.

Some people feel sad when they watch the setting sun. Which color reaches out to you? What do you feel as you experience different colors? If you could choose to be a color, what would it be? May this exhibition be a chance to immerse yourself in colors and to find the ones that speak to your heart.

- Curator Jiyeon Jeong

Artist's Statement

My work expresses the invisible echoes of colors in the form of visible energy. When colors unfold and meet one another, there is an interaction of tension, conflict, and harmony. The echos generated in the process develop into a large flow under the touch of the knife. The flow of colors changes into a strong burst of energy while creating rhythm. The energy produced by the interaction of colors gives form to various emotions and sentiments. Now, the canvas becomes a sensory zone with a balance between heavy tension and light contentment, and between smoothness and sharpness. By resonating with the energy of colors, I believe I can encounter moments that give meaning to my existence.

- Artist MiSook Lee